

전북지역 산업현장 안전사고 여전

근로자 인명피해 6,260명... 지난해에도 1,848명 장비 미착용-안전수칙 위반 적발 1,090건 고용노동부 "현장 사고 감축 위한 홍보-점검 활동 강화"

강교현 기자 kyohyun21@sjbnews.com

전북지역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현장 사고로 73명이 숨지고 6,260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사망 19

명·1,853명, 2018년 사망 34명·부상 2,188명, 2019년 사망 20명·부상 2,219명 등이다. 지난해에도 10월까지 1,848명의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숨진 근로자는 16명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모두 2,281건의 사고가 발생해 내국인 125명과 외국인 17명 등 142명이 숨졌다. 사고는 떨어짐, 넘어짐, 물체에 맞음, 절단·베임·찔림,

부딪힘, 끼임·깔림, 화재·폭발, 감전 등이다. 이 중 사망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떨어짐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 장수군 한 공장·기숙사 증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44)씨가 공장 2층에서 작업을 하던 중 4.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그 뒤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돼 3개월 뒤에 숨졌다. 같은 해 5월 전주시 덕진동 한 공사현장에서 안전모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기도 했으며, 9월 진안군의 한 공사현장에서도 보호 장비를 미착용한 근로자가 공사 중 추락해 숨지는 사례가 있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불시감독, 산업현장 위험상황신고제도 운영 등 산업현장 안전 점검을 통해 2017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090건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 등 사법 조치했다. 전주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 사고와 낙상 사고는 안전망 설치 등 기본적인 사고 예방조치가 미흡해 일어나는 경우 많다"며 "사업주는 물론 현장 근로자들도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 재해 감축을 위해 고위험 사업장 밀착관리, 중대재해 조사, 자율안전컨설팅 등을 유관기관과 협조해 합동 점검하고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관리협회, 전주시지봉센터에 성금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시지봉사센터에 21일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성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 이웃의 생필품과 난방용품, 긴급복지지원 지원에 사용된다. 배기용 간협 전북지부 본부장은 "성금 전달을 통해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협 전북지부는 매년 명절에 성금 전달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권동혁 기자

'119' 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

화재나 구조 관련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1일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짓신고에 대해 21일부터는 상황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기준 최대 200만원에서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은 "장난이나 허위 신고를 인지해 출동하지 않는 장난전화와는 구분되지만 이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병현 덕진소방서장은 "거짓신고의 처벌 강화는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불필요한 출동에 의한 소방력 낭비가 없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교현 기자

출소 후 신고자 찾아가 협박한 40대 실형

광주교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는 21일 신고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보복협박)등으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8일 새벽 1시께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들어와 술집에 찾아가 "공밥 잘 먹고 왔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8월 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는, 신고자에게 앙심을 품고 출소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번 기간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말리려는 다른 이들도 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정선 기자

“안전한 전북 만들기 최선 다할 것”

조병노 자치경찰부장, 김철우 수사부장 기자간담회서 다짐




신임 전북청 자치경찰부장과 수사부장이 “안전한 전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조병노(52·경정 특채·왼쪽) 자치경찰부장은 “올해 출범하는 자치경찰제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에 인사, 예산, 감사 등 여러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해 준비하고 있다”며 “제도도 전북 지역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전북도 등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철우(53·경대6기·오른쪽) 수사부장은

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 수사 주체로서 더욱 더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겠다”며 “직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병노 신임 자치경찰부장은 익산 출신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국회경비대장 등을 지냈다. 김철우 신임 전북청 수사부장은 전남 담양 출신으로 인천청 여성·청소년과장, 연수·계양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강교현 기자

이용호 의원 선거운동 방해 등 혐의 1심 무죄

전주지법 남원지원 1형사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회 이용호(무소속·남원임실순창)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29일 오전 11시10분께 경정 상태였던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이 의원은 기자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과 이 후보에게 “지역 국회의원으로 인사 왔는데 왜 만나지 못하게 하나”며 언성을 높였다. 검찰은 당시 행사를 ‘선거운동’으로 보고 이 의원을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가 당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장 내에서 벌어진 몸싸움 등 소란에 대해서도 이 의원의 잘못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위원장 쪽으로 다가갔고 했을 뿐”이라며 “시장 통로는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곳이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피고인의 통행을 막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의 인사말을 중단시켰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시간도 1분 정도로 짧다”고 판시했다. /양정선 기자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 요구한 경찰 간부 구속, 전북청 '유감'

사건 청탁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놓였던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는 21일 A(53)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관리행사 방해 등이다. A경위는 수사 대상자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경찰관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1차 수사종결권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려 터진 비위 의혹에 전북청도 유감을 표했다. 전북청 관계자는 “수사권이 사건관계인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혐의 유·무를 떠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런 일탈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회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도 약속했다. 전북경찰청은 “사건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등 교육이나 감찰 활동을 철저히 하겠다”며 “특히 (이 같은)행위가 발생했을 때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결과 해제와 징계·전출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양정선·강교현 기자



익산소방서 119구조대, 동절기 수난사고 대비 구조훈련

익산소방서가 겨울철 해빙기 인명구조 신속대응에 나섰다. 익산소방서는 21일 119구조대원을 대상으로 금마저주지 일대에서 동계수난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해빙기 하천, 저수지 등 내수면 수난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수중탐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나눠 훈련을 진행했다. 향후 익산소방서 구조대는 최첨단 수중장비 등 특수수난구조장비를 활용해 수난사고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역량 강화에 매진할 계획이다. 우형선 119구조대장은 “겨울철 수난사고는 대부분 얼음의 결빙상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부주의에서 발생한다”며 “겨울철 낚시와 캠핑 같은 야외 활동 중에는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고윤영 기자

친절한 부동산의 산재중개

광고문의 : 063)230-5700
010-3654-5030

공장전문 하나로부동산

대표 박종탁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공장 매매 및 임대
- 건물 : 2,684㎡ (용도 : 공장 / 창고사용가능)
- 토지 : 9,414㎡
※ 매매금액: 12억
※ 임대료 보증금 월세 1년분 월세 평당 1만원(약간조정)

익산시 합월읍 남당리 공장 임대
- 건물 : 150평(용도 : 공장 / 창고사용가능)
- 보증금 1500만, 월세 평당 1만원 8월 입주가능

010-3651-6304

LBA 재테크 공인중개사

금암동 중앙하이츠A맞은편 버스정류장 옆(구.금암A)

매물접수

(전북지역)

상가, 건물, 토지, 임야
원룸, 아파트, 주택 등

— 투자상담 —

매수자] 대기중
임차인] 대기중

063)232-7114 / 010-3652-7114

도민과 함께 만드는 신문!
새전북신문입니다.

구독문의 063)230-5712